



LA한국교육원, 2024 찾아가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성료

- 남가주 3개 지역(노스리지, 리버사이드, 팜스프링스), 뉴멕시코, 애리조나 등 5개 지역에서 총 100여명 연수 실시
- '영어권 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 스킬' 등 노하우 전수 및 학교 운영 컨설팅 실시

-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7월 25일 뉴멕시코를 시작으로 노스리지(8월 17일), 리버사이드(8월 23일), 팜스프링스(8월 23일), 애리조나(8월 24일) 지역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교사연수'를 실시했습니다.
- 총 5회에 걸쳐 실시된 한글학교 교사 연수는 연수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, LA한국교육원의 한국어교육 전문강사들이 직접 한글학교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.
- 각 연수에서는 교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계획서 작성법, 영어권 학생 대상 한글 교수법 등을 전수하고, LA한국교육원이 학교 운영 컨설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.
- 노스리지 지역 연수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교사들이 연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자녀들을 위한 전통공예 만들기, 전통 놀이 등의 한국 문화 뿌리교육을 동 시간대에 함께 실시하여, 참석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
- 또한 애리조나 연수는 피닉스 뿐 아니라 투싼, 시에라비스타 지역 등 총 4개 한글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가하여 연수 이후에도 교사들이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.

- 뉴멕시코 지역 연수에 참가한 이수신 교장은 “앨버커키 지역은 LA와 같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, 전문적인 한글 교수법을 익힐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, 이번 연수에서 배운 교수법을 교실에 적용하면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” 라고 말했습니다.
- 또한 팜스프링스 박종석 교장은 “교육원이 한글학교 운영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한글학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이 인상 깊다”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
- 강전훈 원장은 “이번 ‘찾아가는 교사연수’는 각 지역의 한국어교육의 근간인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. 앞으로도 남가주뿐 아니라 애리조나, 뉴멕시코 등 모든 지역의 한글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가겠다” 라고 밝혔습니다.

붙임 : 사진 6부.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	담당자	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	담당자	

사진 1 : 찾아가는 교사연수(8월 24일 애리조나 CTCC한국학교)



사진 2 : 찾아가는 교사연수(8월 24일 애리조나 CTCC한국학교)



사진 3 : 노스리지 교사 연수(8월 17일 에브리데이 한국학교)



사진 4 : 노스리지 교사 연수에 참석한 교사 자녀들이 한국 문화 체험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



사진 5 : 한글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(8월 23일 팜스프링스 필그림 한국학교)



사진 6 : 한글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(8월 23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)

